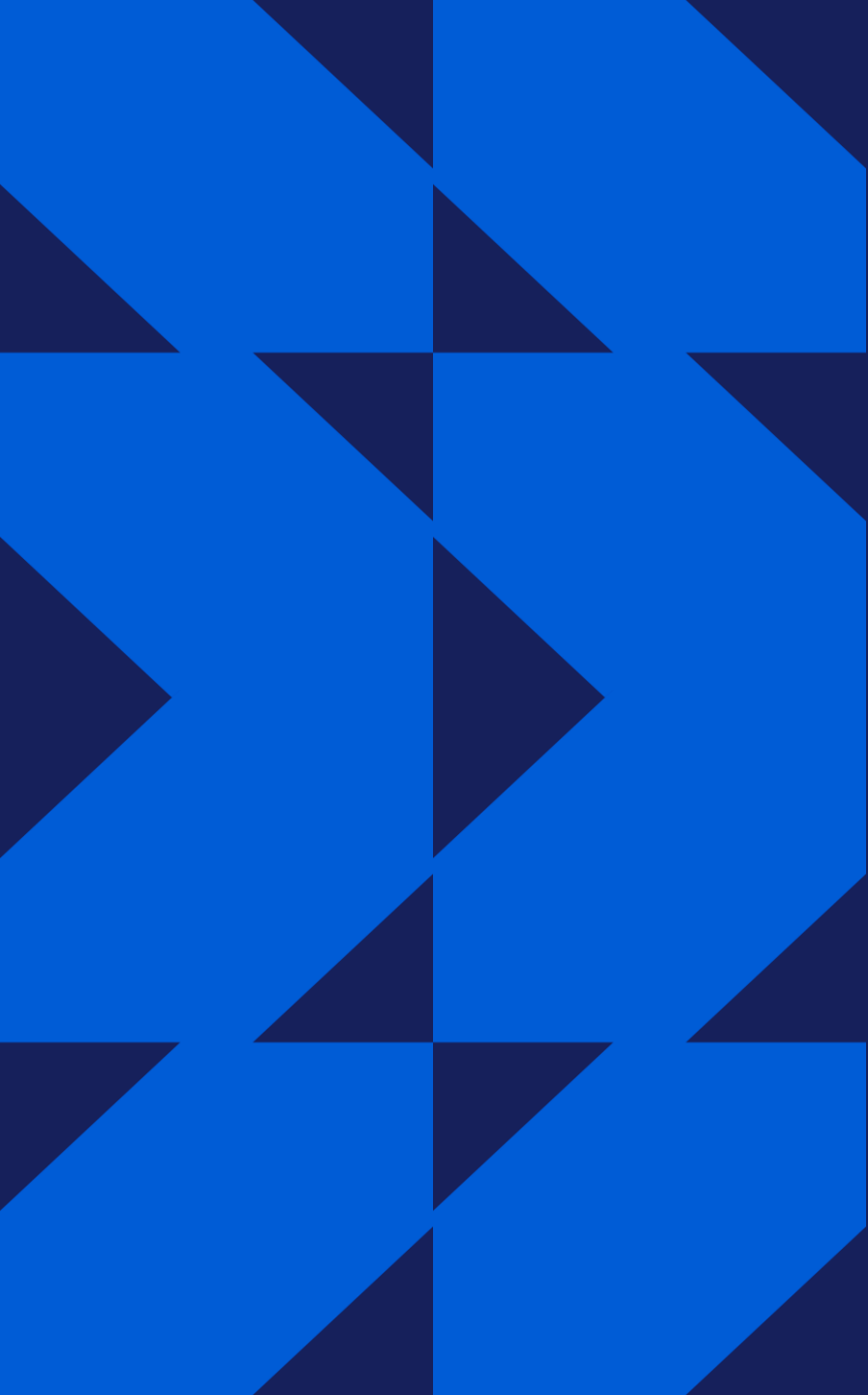




글로벌인재포럼 2025 | Global HR Forum 2025

적은 인구, 더 강한 인재

인재 강국을 위한 교육의 방향

김희삼 | Hisam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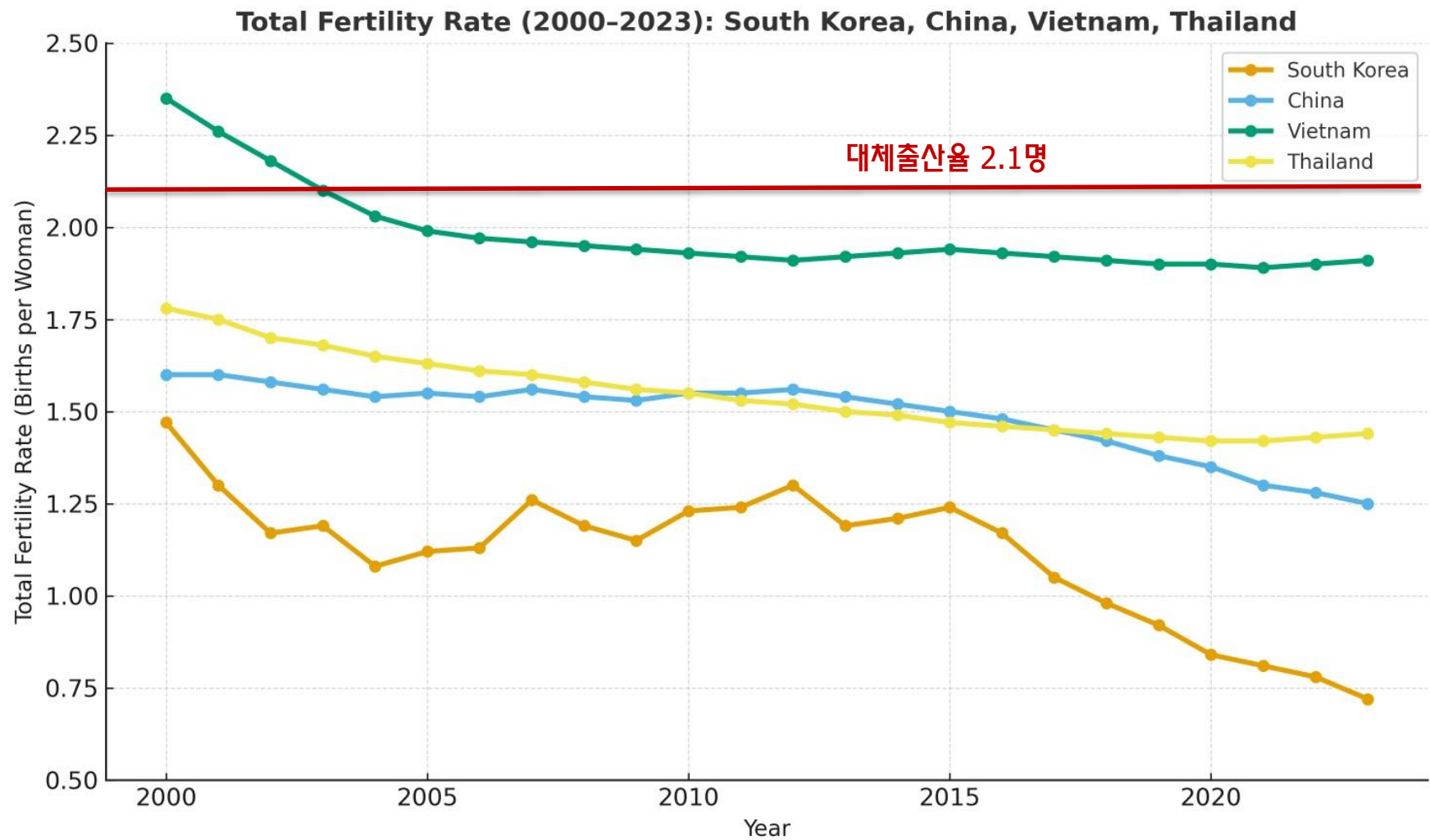
지스트 | GIST

2025. 11. 6.

우리 미래는 어디에? – 머리 수? 머리 속?



외국 인력 도입이 주요 해법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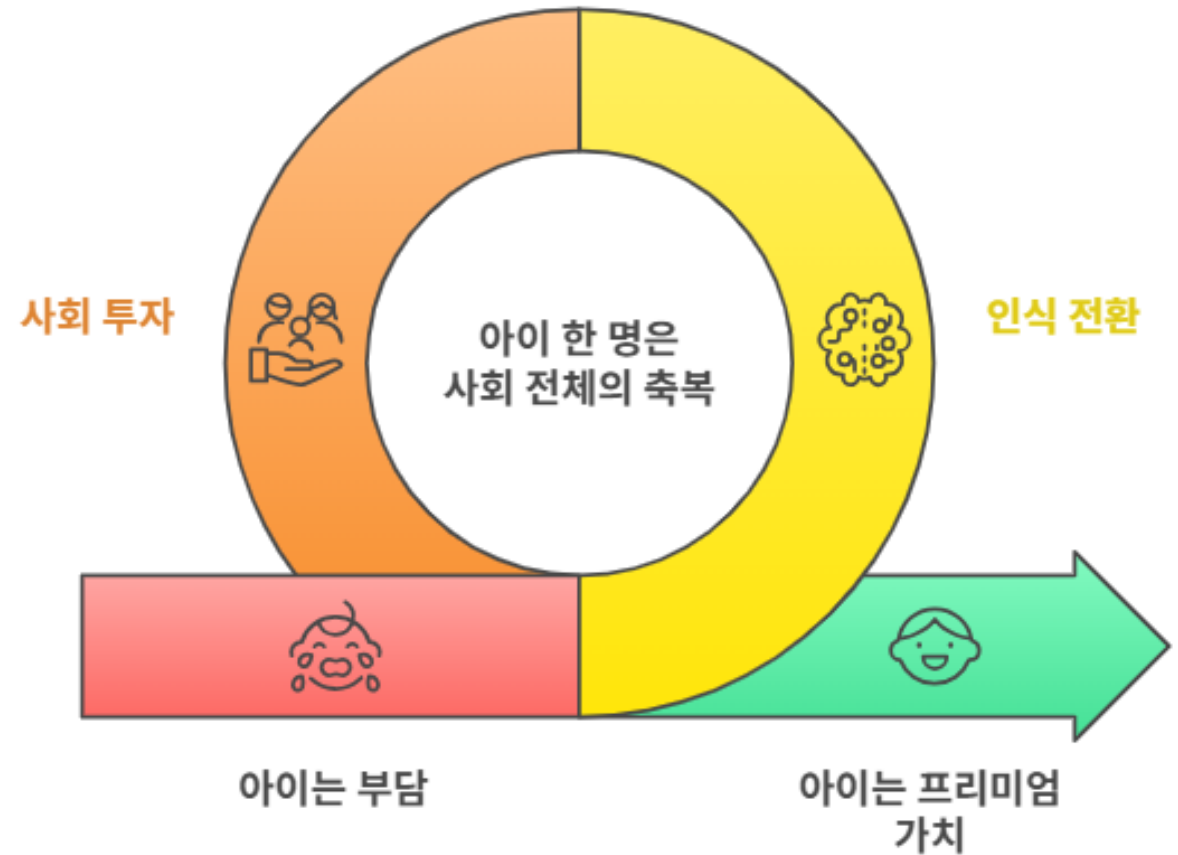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장기+단기) 현황
(2024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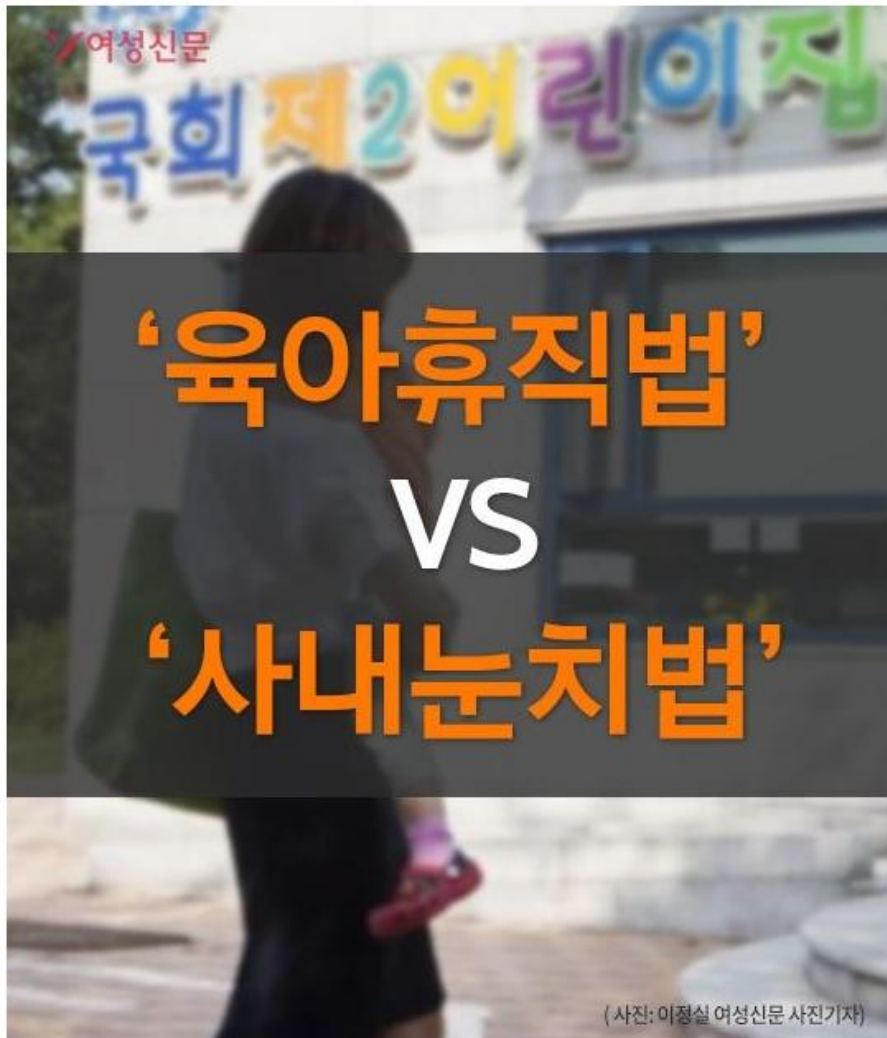
외국인 국적	인원수	비중
중국 (한국계 포함)	958,959명	약 36.2%
베트남	305,936명	약 11.5%
태국	188,770명	약 7.1%
미국	170,251명	약 6.4%
우즈베키스탄	94,893명	약 3.6%
필리핀 등 기타	나머지	나머지

자료: 법무부

아이를 낳으면 '3불'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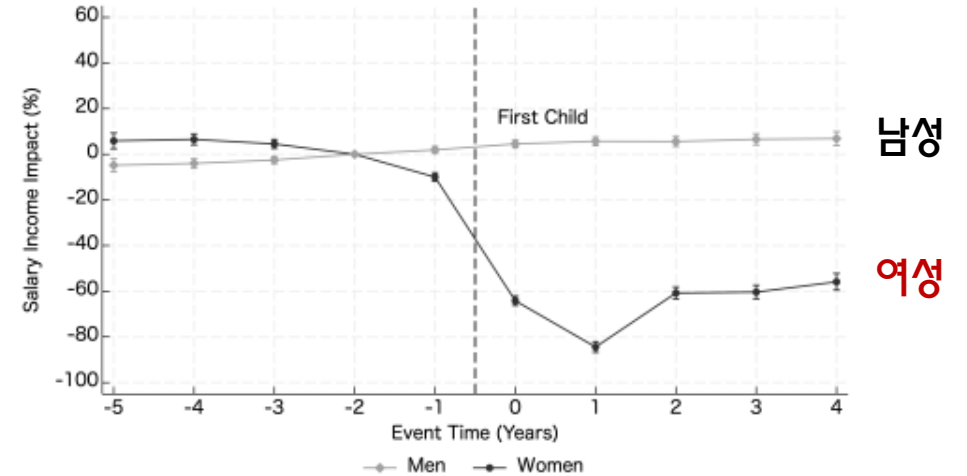


제도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엄마 직장인의 불이익이 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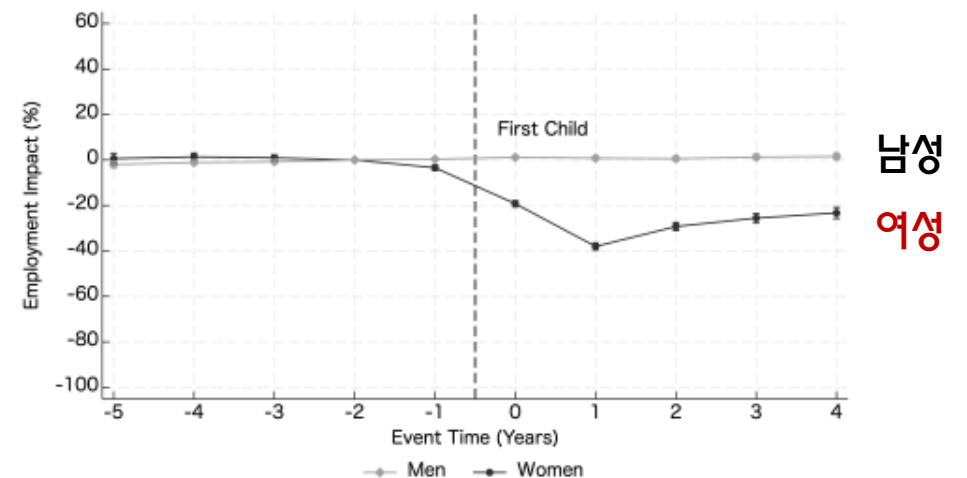
© 여성신문

첫 아이
출산 전후
임금 소득
변화(%)



(a) Impact on Salary Income

첫 아이
출산 전후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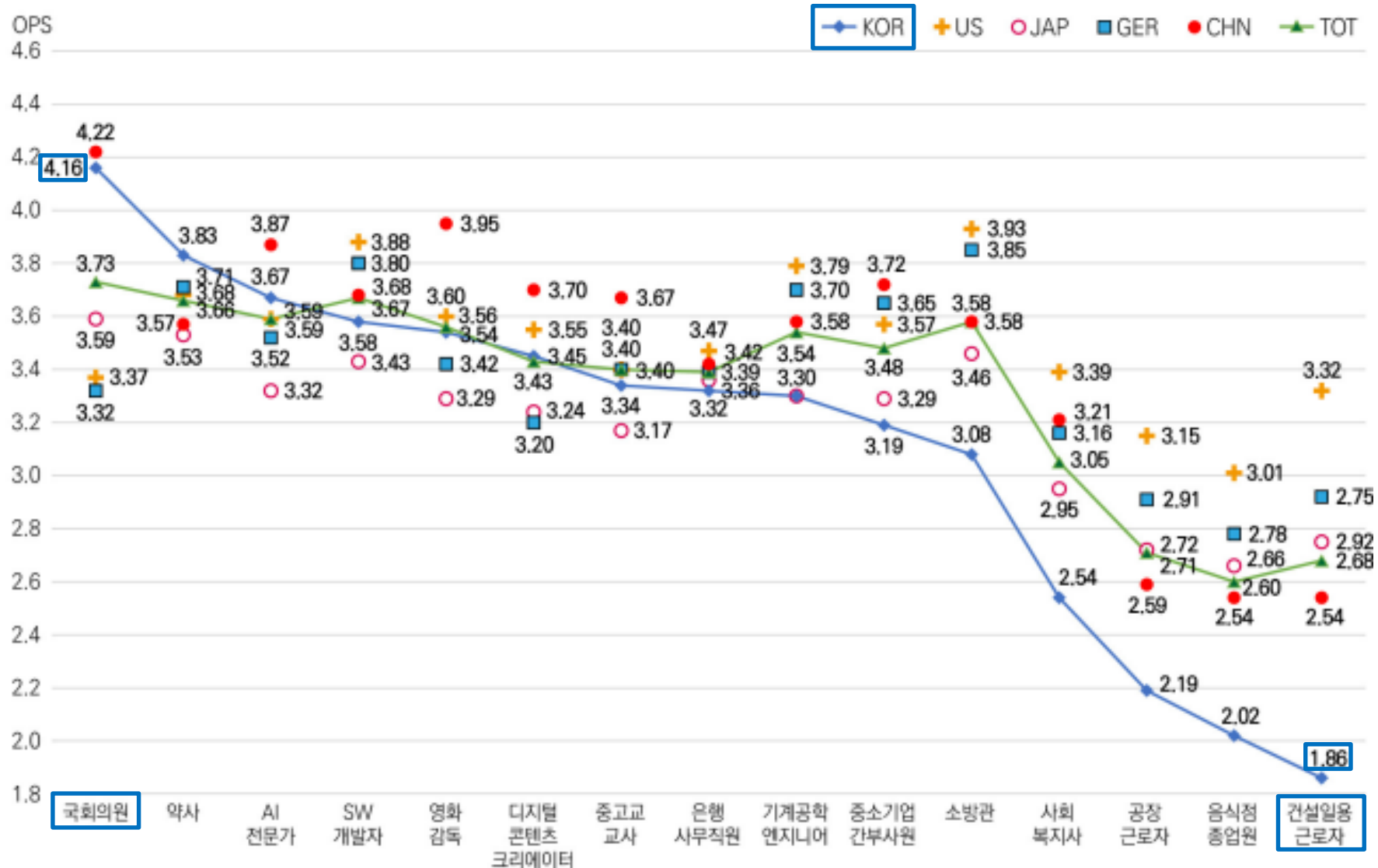
(b) Impact on Employment

출처: Fukai & Kondo (2025)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직업 귀천 의식이 강한 한국

2023년 직업 위세* 인식 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연구>, 2023. 12.)

*각 직업의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1~5)



'영유'로 시작하는 사교육 경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수업료 119만원... "대학 등록금 2배"

구은모 기자

입력 2023.08.21 17:28 수정 2023.08.21 17:28

교육시민단체, 학원 329곳 실태조사

서울시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가 119만원으로 대학교 등록금의 2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좌장을 맡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임마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걱세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열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 대비 18개 늘어난 총 329개로 집계됐다. 지역은 강남·서초가 87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송파(59개), 강서·양천(34개), 은평·서대문·마포(30개)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인재 경쟁력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아이가 3살 때부터 돈을 내고 있었어요



학원 뱅뱅이를 경험하면서 하루는



너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까
둘째 계획을 접게 됐거든요

사교육 경쟁의 정점이 이렇게 한 곳이라면...



85학년도 이후 전국 자연계 최고 상위 20위 이내 학과

순서	1985학년도	1990학년도	1995학년도	2000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1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
2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컴퓨터공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연세대 의예과	연세대 의예과	연세대 의예과	연세대 의예과
3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전기공학부	성균관대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가톨릭대 의예과
4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가톨릭대 의예과	가톨릭대 의예과	가톨릭대 의예과	서울대 의예과(지균)
5	서울대 미생물학과	서울대 미생물학과	서울대 약학과	가천의과대학 의예과	고려대 의과대학	울산대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6	서울대 기계공학과	서울대 제어계측	서울대 산업공학과	경희대 한의예과	울산대 의예과	고려대 의과대학	고려대 의과대학
7	서울대 항공학과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고려대 의예과	가천대(메디컬) 의예과	가천대(메디컬) 의예과	고려대 의과대학(교과우수)
8	서울대 전자계산학과	서울대 기계공학	연세대 의예과	서울대 건축학과	경희대 의예과	경희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
9	서울대 산업공학과	서울대 계산통계	경희대 한의예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	아주대 의학과	아주대 의학과	울산대 의예과
10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	서울대 항공우주공	서울대 공업학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중앙대 의학부	중앙대 의학부	가천대(메디컬) 의예과
11	연세대 의예과	서울대 기계설계	가톨릭대 의예	서울대 전기공학과	한양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	경희대 의예과
12	서울대 치의예	연세대 의예과	고려대 의예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서울대 치의학과	이화여대 의예과	서울대 치의학과
13	서울대 계산통계	서울대 전기공학	연세대 치의예	서울대 치의예과	이화여대 의예과	서울대 치의학과	인하대 의예과
14	서울대 기계설계	서울대 산업공학	아주대 의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인하대 의예과	인하대 의예과	중앙대 의학부
15	서울대 전기	서울대 화학과	서울대 섬유고분자공	아주대 의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연세대 치의예과	아주대 의학과
16	서울대 화학	서울대 화학공	서울대 화학공학과군	연세대 치의예과	연세대 치의예과	경북대 의예과	이화여대 의예과
17	서울대 원자핵	서울대 공업화학	이화여대 의예	울산대 의예과	경북대 의예과	부산대 의예과	부산대 의예과
18	서울대 약학	서울대 수학	한양대 의예	경원대 한의예과	부산대 의예과	순천향대 의예과	인제대 의예과
19	서울대 수학	서울대 약학	경희대 치의예	서울대 산업공학과	순천향대 의예과	한림대 의예과	단국대(천안) 의예과
20	서울대 건축	서울대 치의예	서울대 의류	서울대 약학과	한림대 의예과	단국대(천안) 의예과	연세대 치의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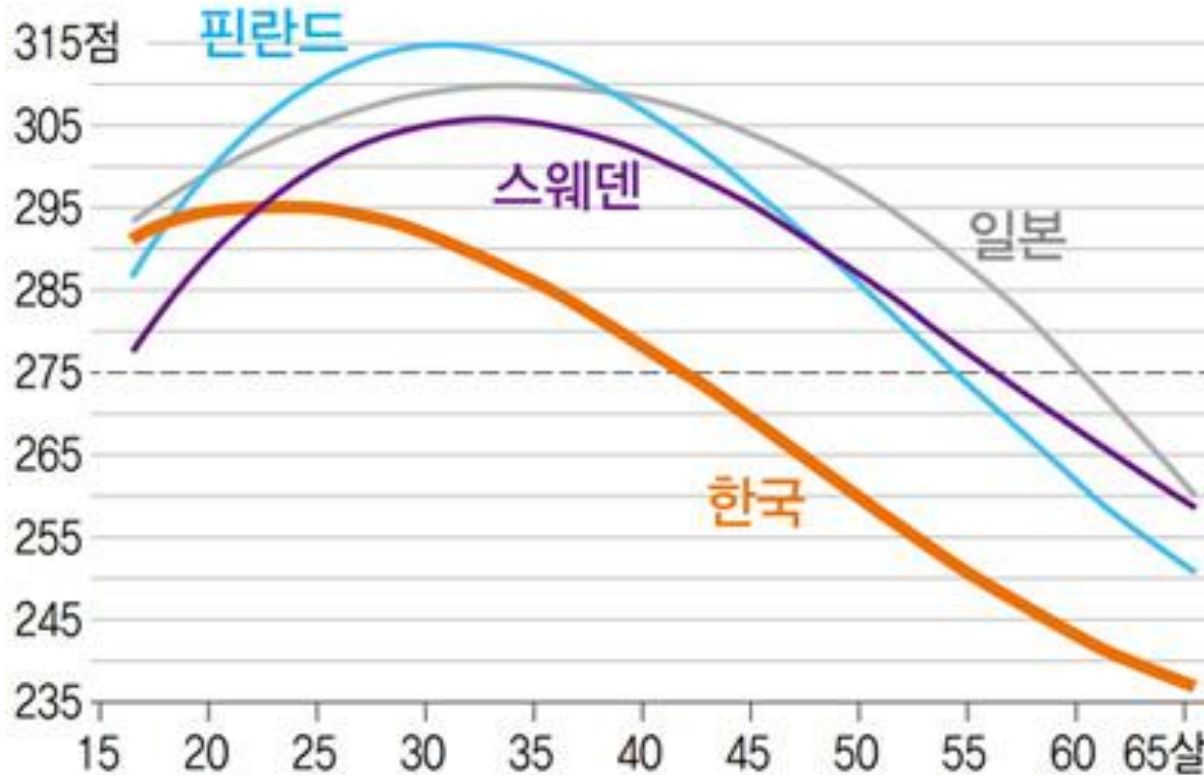
※ 약대의 경우 2009학년도~2021학년도(2+4체제) 운영. 2022학년도 부터 신입생 선발

※ 각 해년도 정시 지원 가능 점수 토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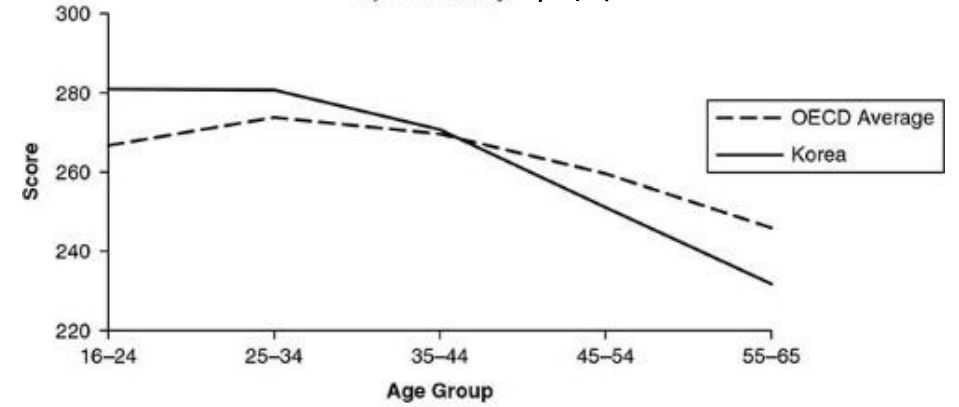
인적자본의 조로 사회에서 맞게 될 100세 시대

문해력과 연령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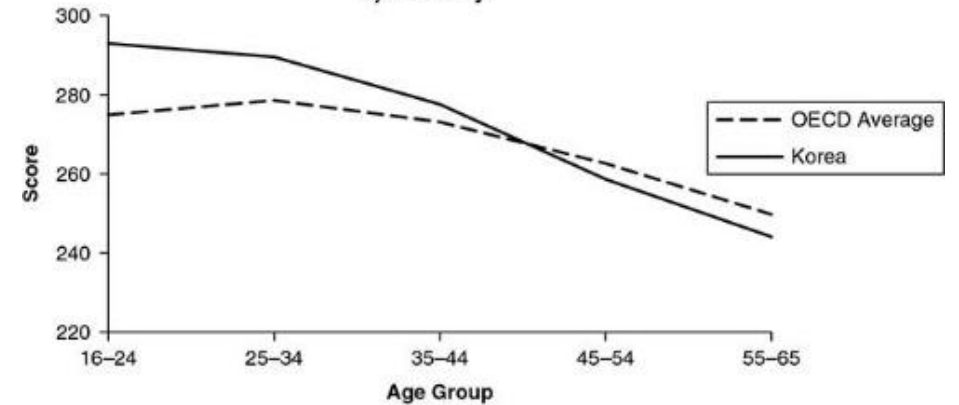
자료: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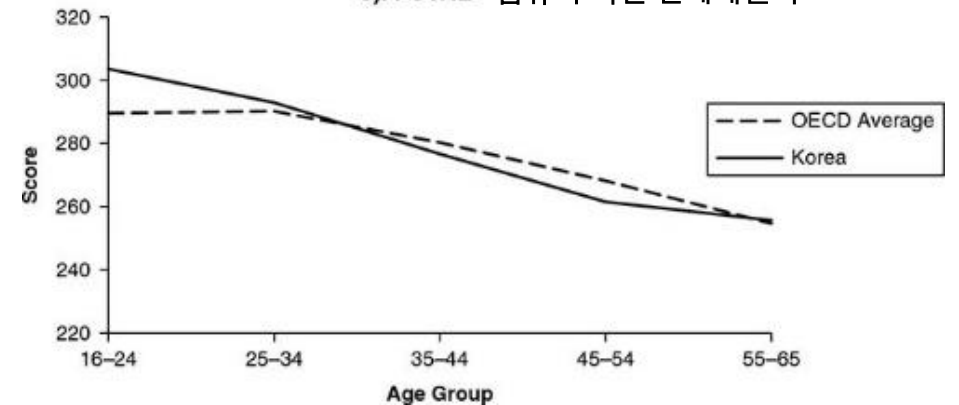
a). Numeracy 수리력



b). Literacy 문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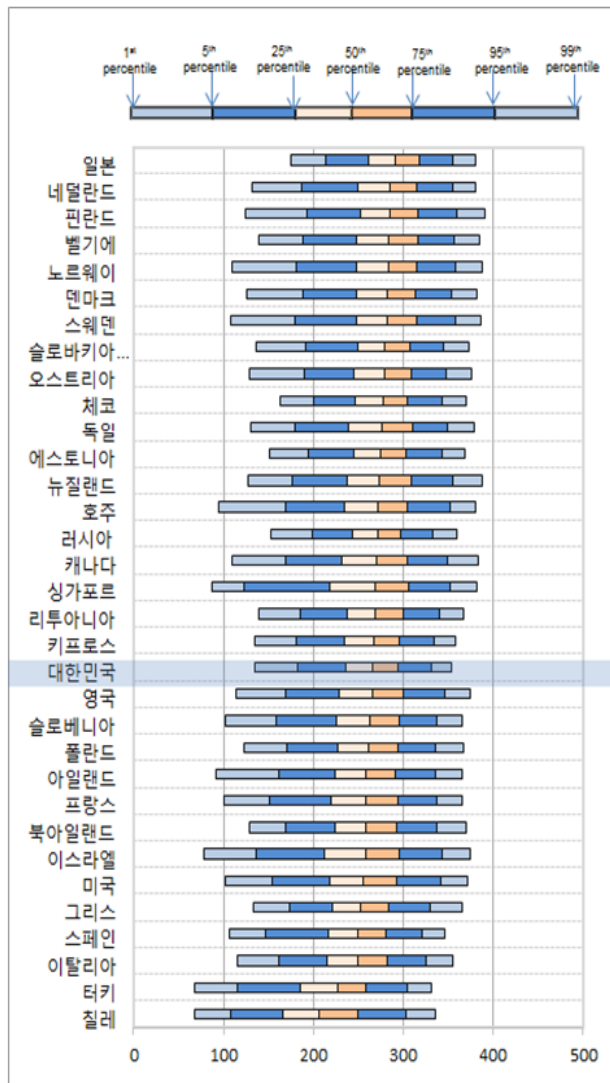


c). PSTRE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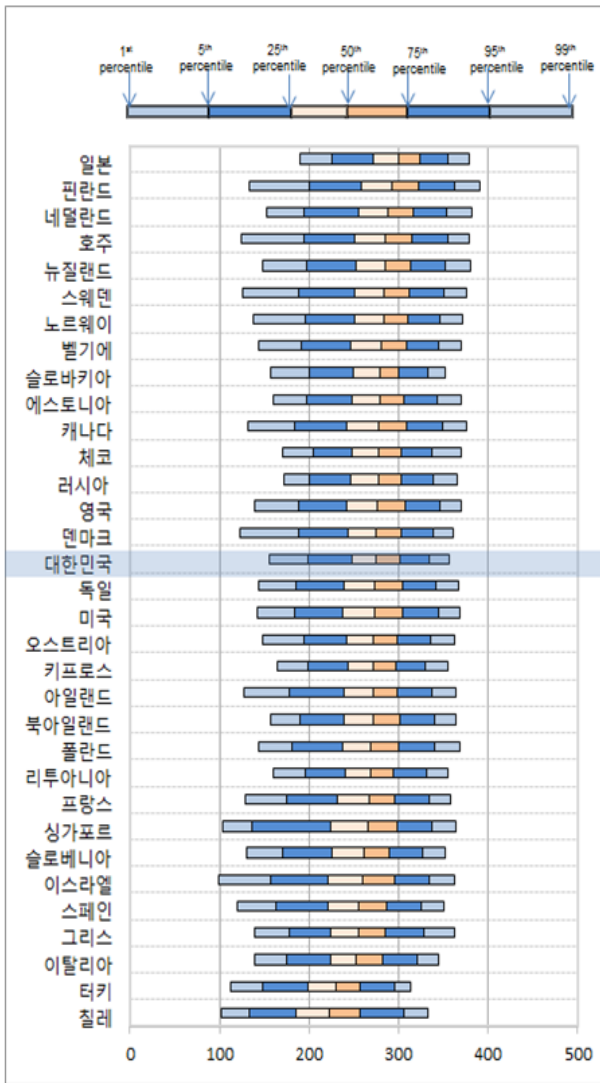


한국인(16~64세) 능력은 중간 밀집형 → (최)상위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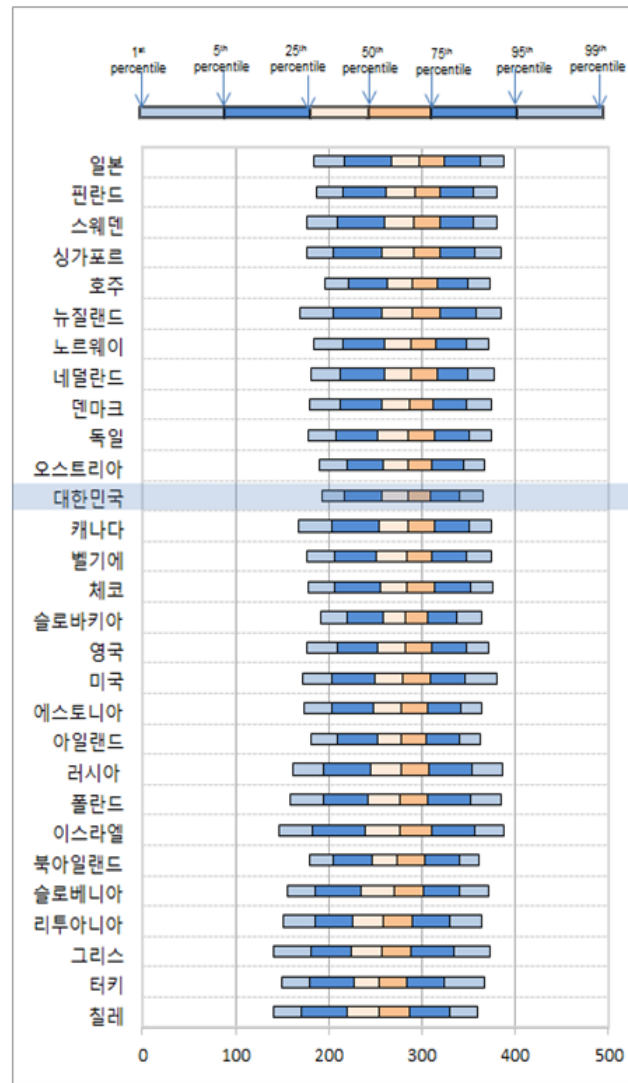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수리력 분포



[그림 2] 국가별 언어능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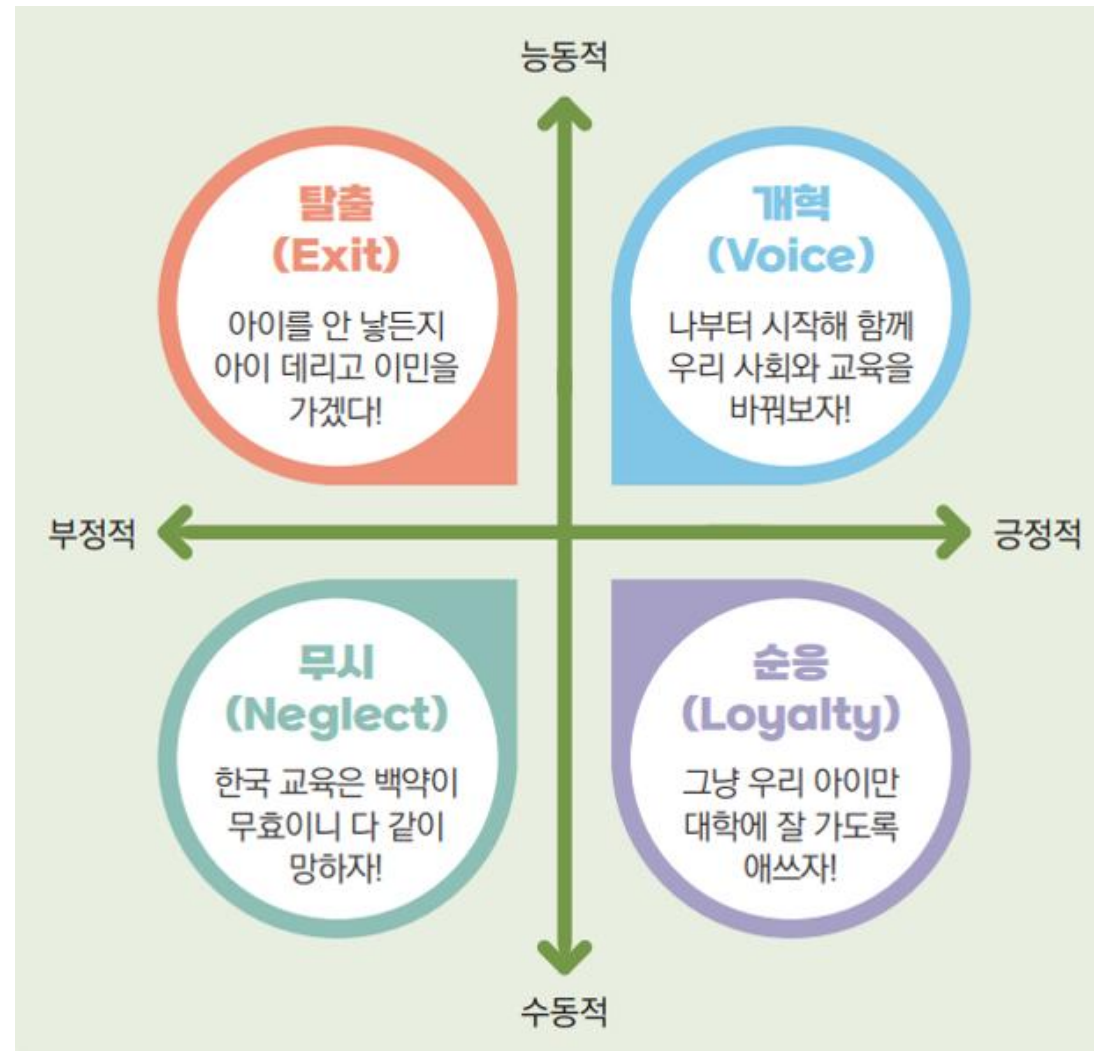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분포



출처: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원자료를 이용한 박윤수(2019)에서 재인용. 국가별 순서는 중앙값(50백분위수)의 내림차순임.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응 방식의 유형



– 교사 집단 조사 결과: 탈출(10%), 무시(10%), 순응(70%), 개혁(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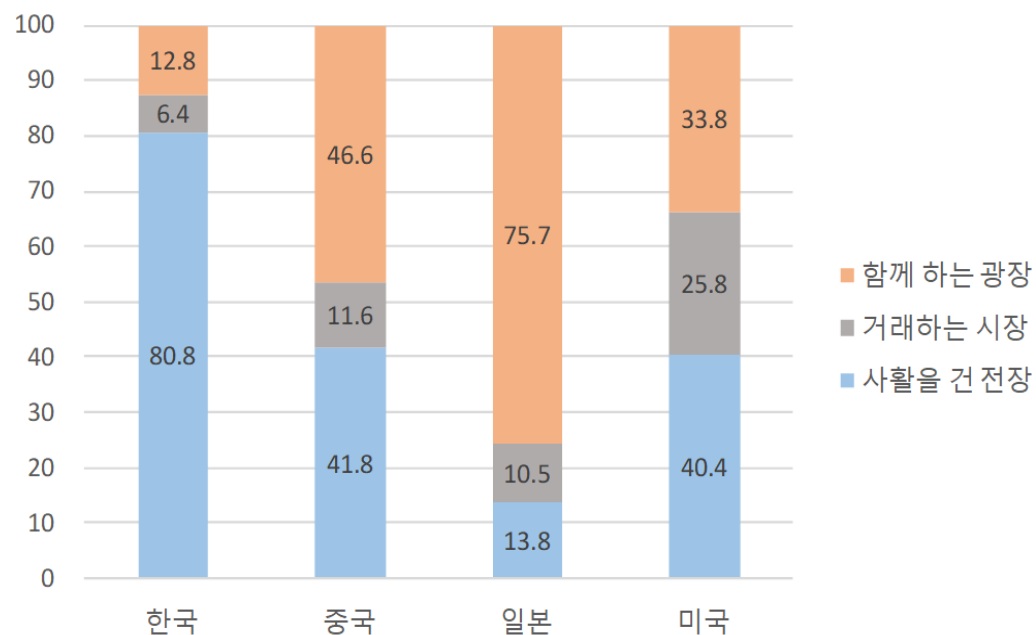
출처: 김희삼,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EBS BOOKS, 2021.

입시 경쟁 속의 학교는... 광장? 시장? 전장?

귀국(귀하)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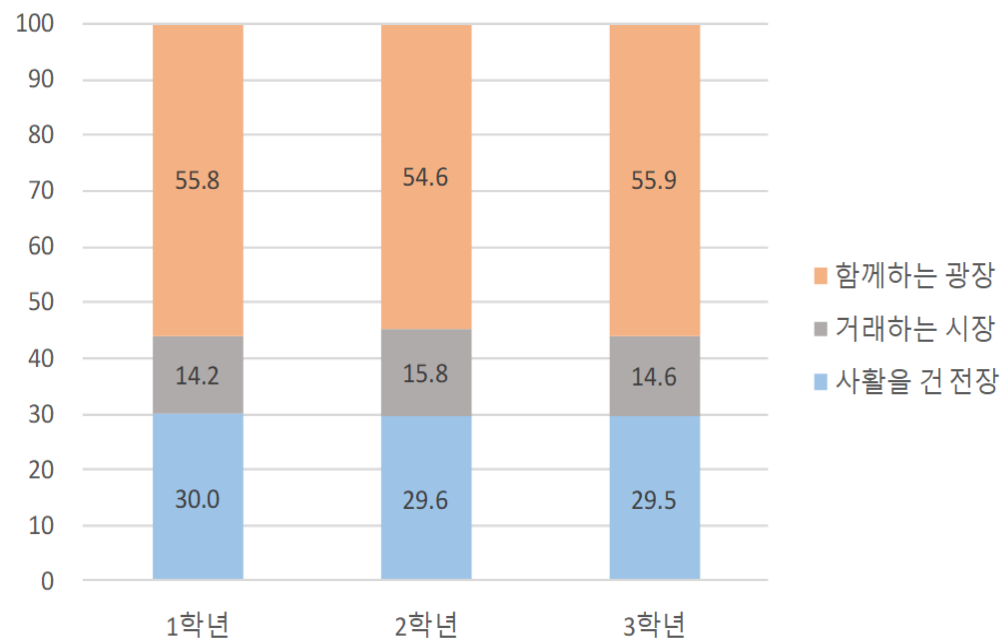
- ① 함께 하는 광장: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 ② 거래하는 시장: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 ③ 사활을 건 전장: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4개국 대학생이 인식한 자국 고등학교 이미지



자료: 2017년 8~9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 각 1,000명, 총 4,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아고등학교 학생이 인식한 자기 고등학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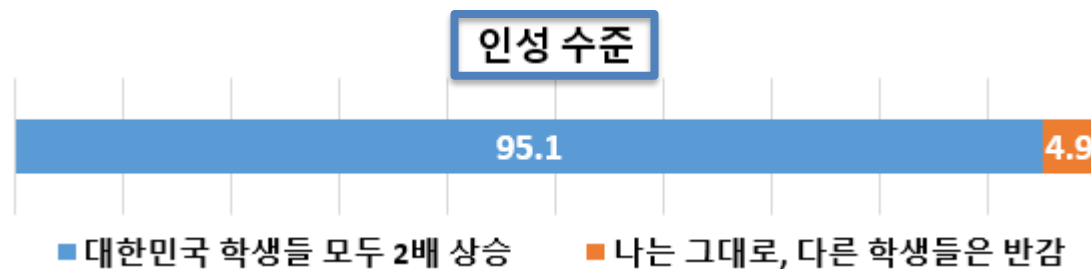


자료: 2025년 3월 24일 비아고등학교 1학년 240명, 2학년 260명, 4월 7일 3학년 261명 설문조사 결과

진실로 모두 '인재 강국'을 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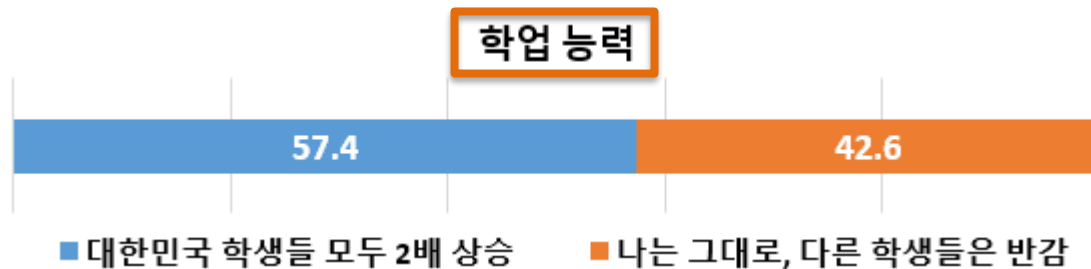
(가상의 상황)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 ①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모두 두 배로 향상된다.
- ②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를 제외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절반으로 퇴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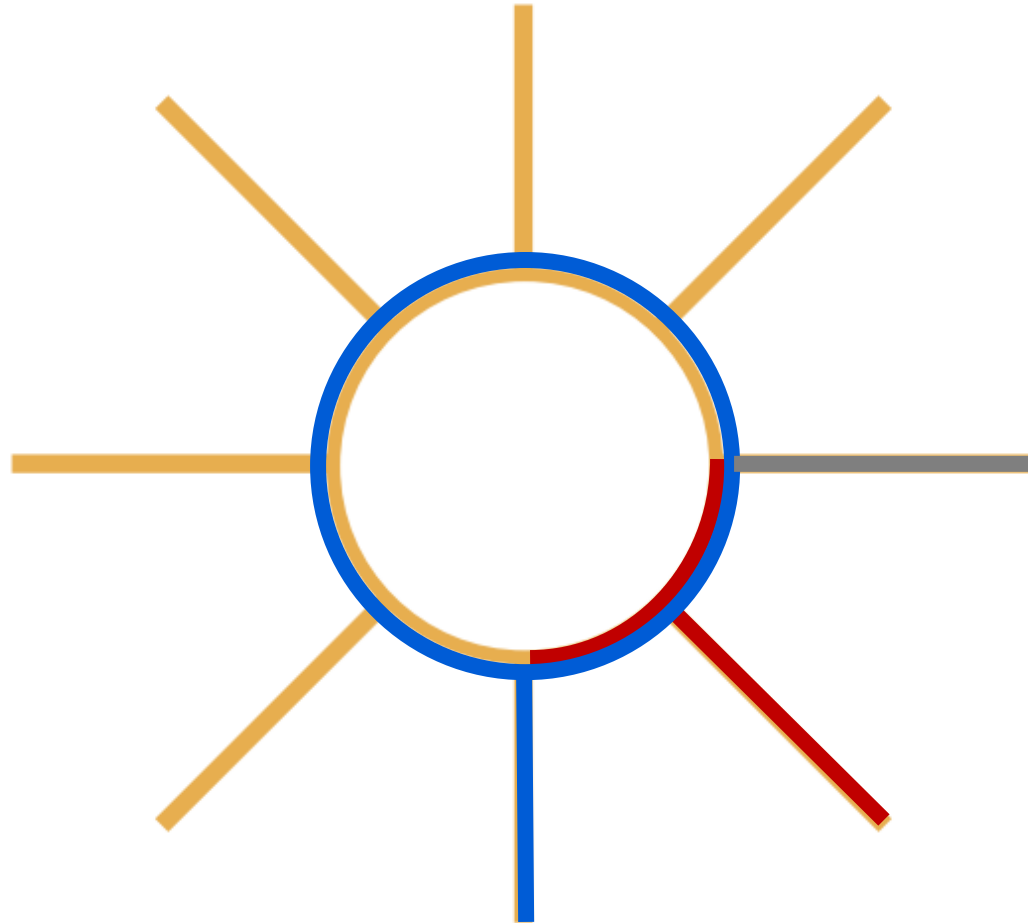
(가상의 상황)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 ①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모두 두 배로 향상된다.
- ②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를 제외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절반으로 퇴보한다.



직(職)보다 업(業)이 중요해질 시대의 교육은? 인재는?

:: '막대사탕형 인재'를 기르는 '햇살형 교육'



과거의 I자형 인재,
현재의 T자형 인재상을 넘어,
누구와도 접점을 가질 수 있고
협업과 AI 고도 활용이 가능한
'막대사탕형 인재'를 기르는
⚙️ 햇살형 교육으로!

출처: 김희삼,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EBS BOOK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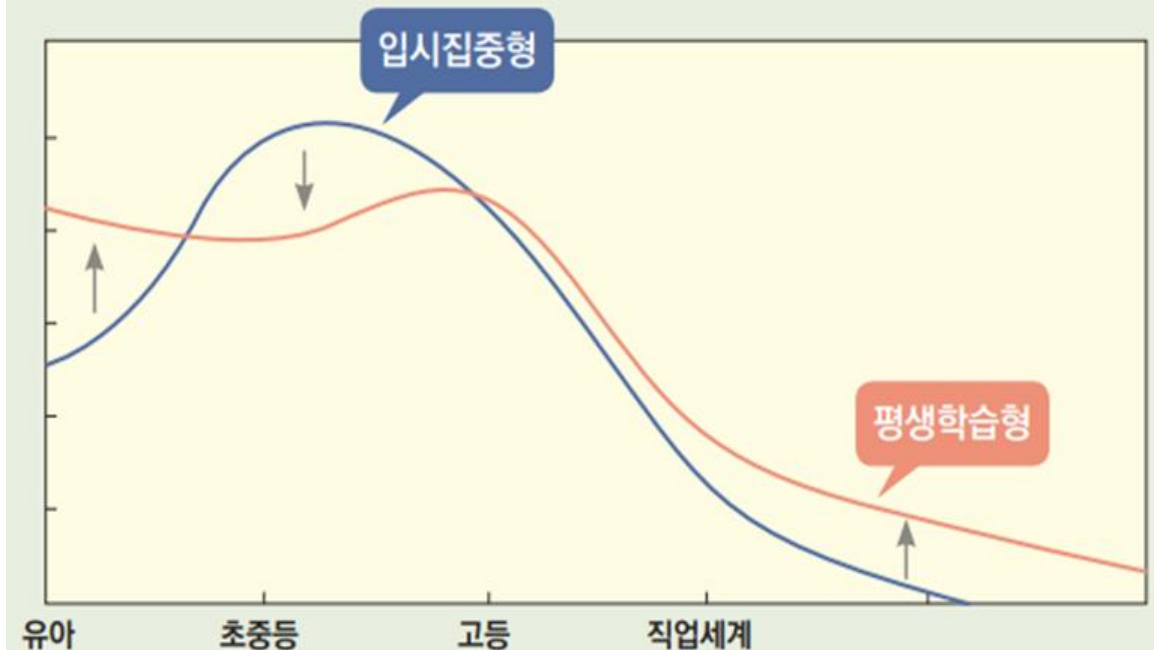
입시집중형에서 평생학습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

:: 한국과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과 거시적 성과 비교

구분	한국	스웨덴
만 15세의 주당 총공부시간(2015)	50.6시간	39.7시간
학생 1인당 초등교육기관 총교육비(PPP, 2018)	12,535달러	12,911달러
학생 1인당 중등교육기관 총교육비(PPP, 2018)	14,978달러	13,500달러
학생 1인당 고등교육기관 총교육비(PPP, 2018)	11,290달러	26,147달러
25~64세 대졸 성인 고용률(2020)	77.0%	89.3%
25~34세 대졸 청년 남성 고용률(2020)	79.7%	86.7%
25~34세 대졸 청년 여성 고용률(2020)	70.9%	84.5%
평생학습 참여율(2012)	50%	66%
취업자 교육훈련 참여 시간	46위	12위
IMD 대학 경쟁력(2017)	53위	19위
IMD 국가 경쟁력(2017)	29위	9위
1인당 GDP(PPPs, 2017)	38,824달러	51,405달러
WHR 행복지수(2021)	5.845 (62위)	7.363 (6위)

자료: 총공부시간은 PISA 2015, 총교육비, 고용률 및 1인당 GDP는 OECD 통계, 행복지수는 World Happiness Report 2021, 평생학습 참여율, 취업자 교육훈련 참여 시간과 경쟁력 순위는 채창균(2020)에서 재인용.

:: 생애주기별 학습량의 재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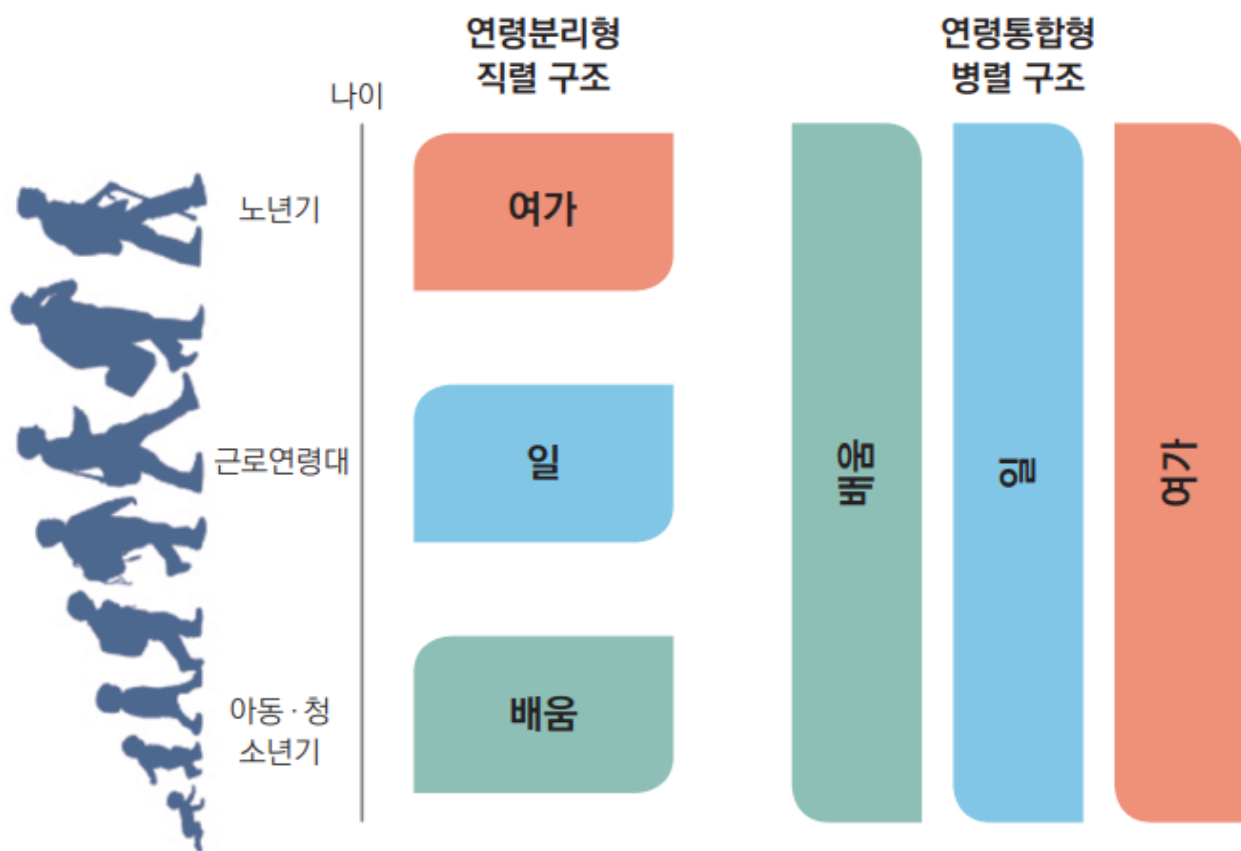


주: 평생학습형 생애학습곡선은 스웨덴의 관련 지표들을 기준으로 형상화한 것임.

자료: 채창균(2020)에서 필자 수정.

배움→일→여가 직렬생애에서 배움 | 일 | 여가 병렬인생으로

:: 배움, 일, 여가의 연령분리형 직렬 구조와 연령통합형 병렬 구조



어르신의 디지털 문맹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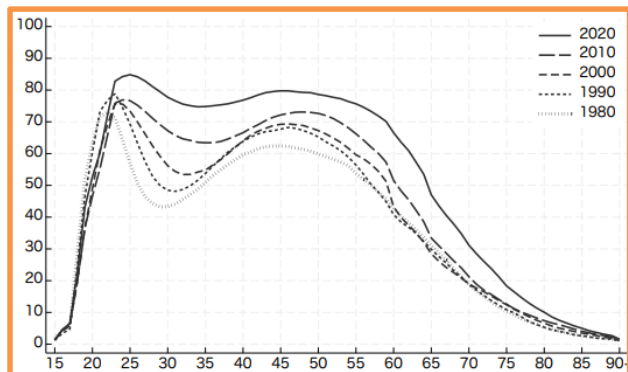


“의무교육은 학령기
학생이 아니라 고령자
에게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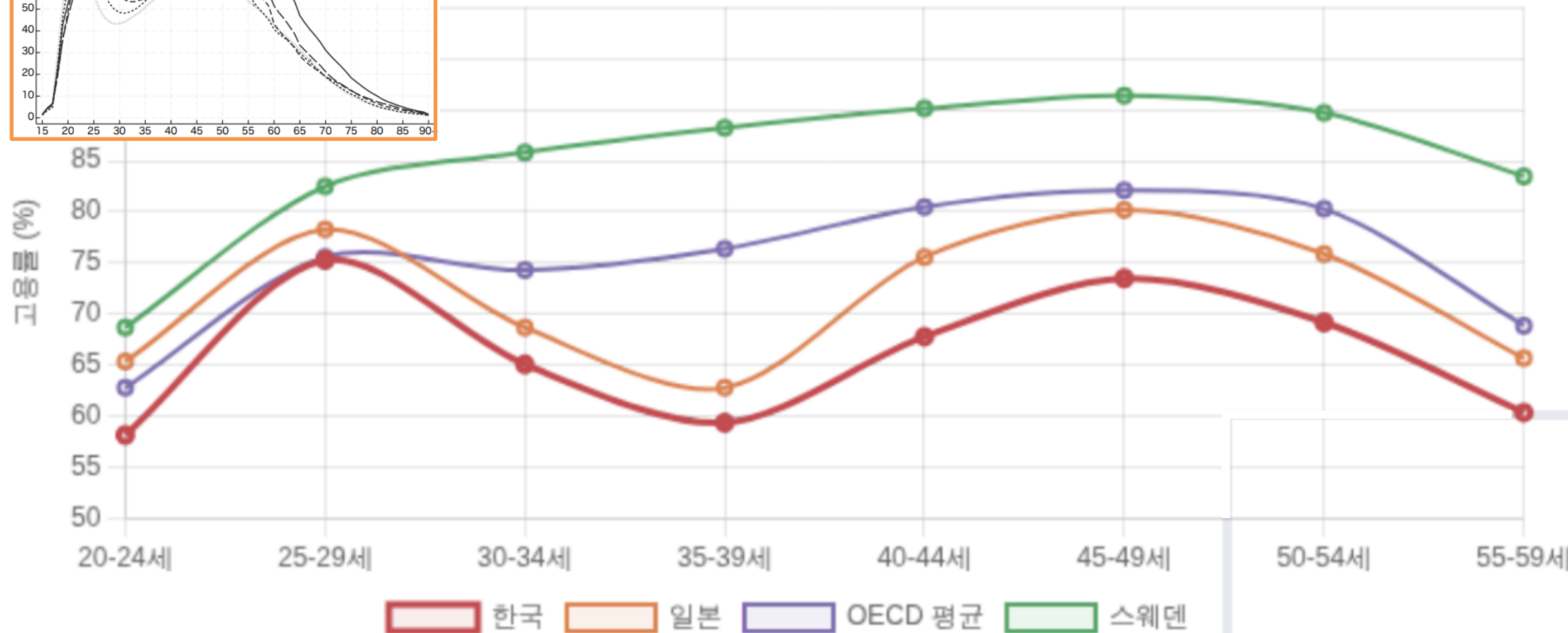
자료: M. W. Riley & J. W. Riley,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000.

그림 출처: 김희삼,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EBS BOOKS, 2021.

M → ∩ → — 성별 관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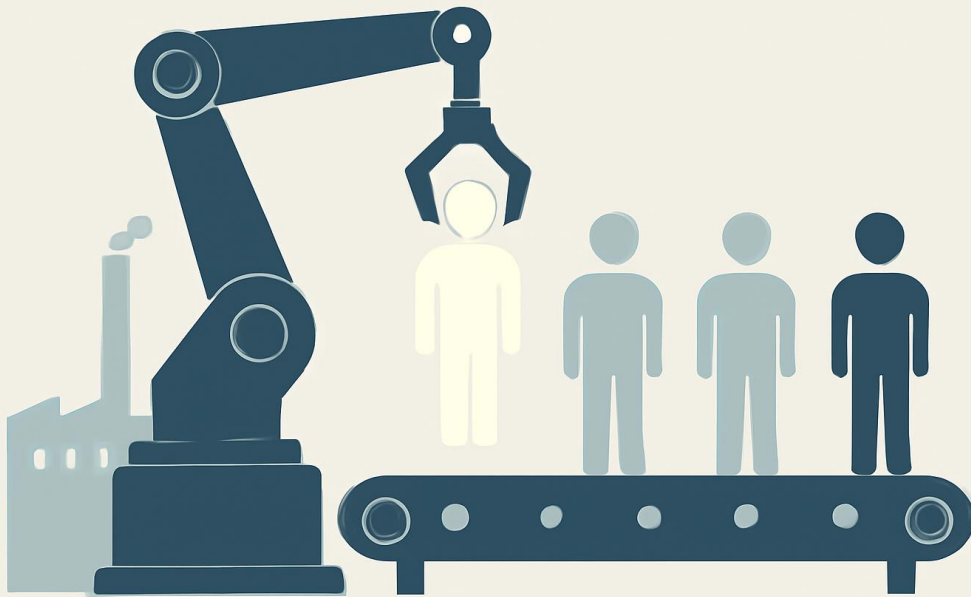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OECD Employment Outlook, 2024.

인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개인적 동인은 무엇인가?

← 생존 불안? vs 행복 추구!

인구 감소 시대에 사람을 갈아 넣는
회사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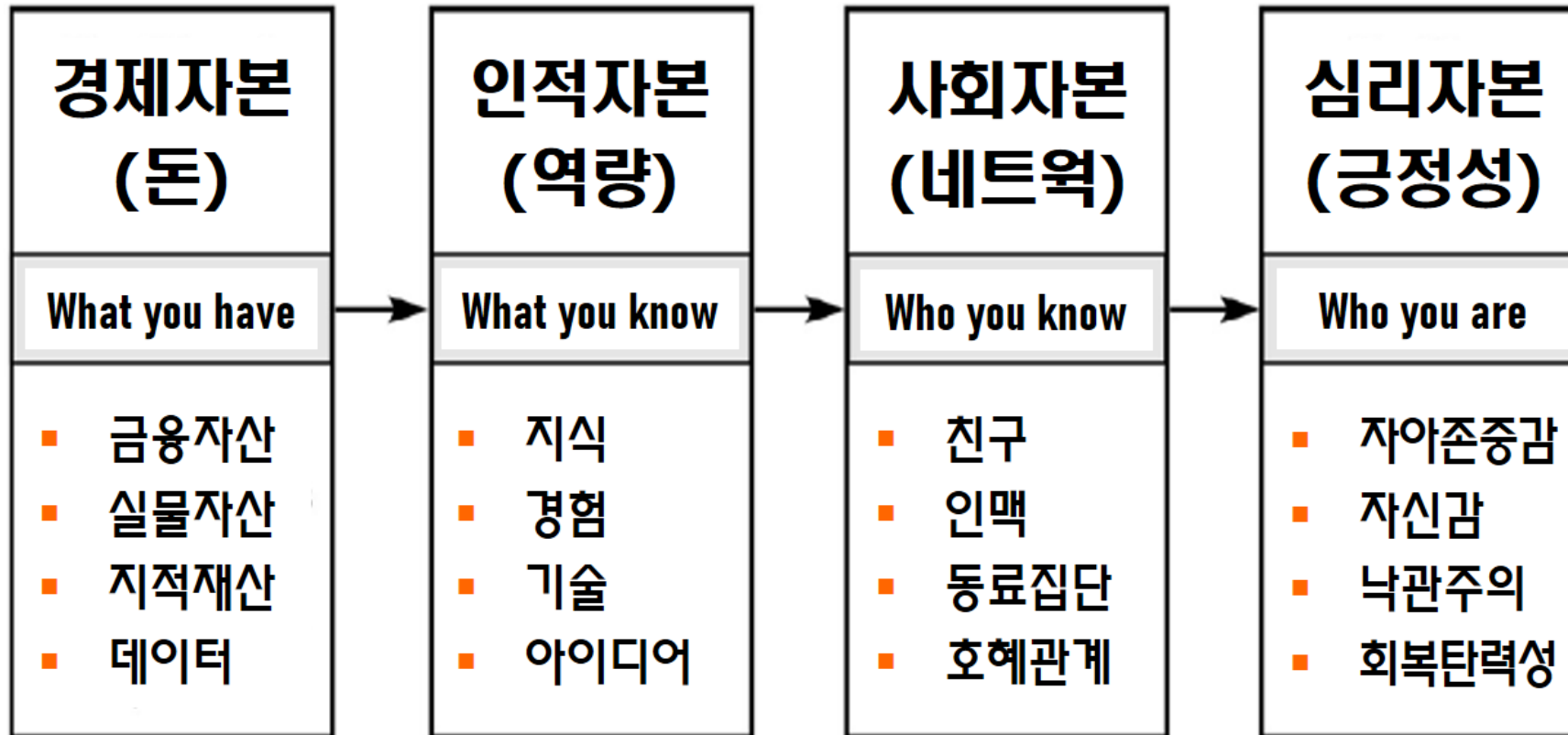
행복감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 수명도 늘어난다!)



출처: Oswald et al., "Happiness and Productiv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3(4), 2015.
Danner et al.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5), 2001.

경쟁력과 행복을 위해 어떤 자본,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 사회자본과 긍정적 심리자본도 함양하는 교육 필요



출처: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2004: 45-50. Figure 1을 재구성

[제안] 적절한 시기에 행복 공부를 제대로 해볼 수 있다면...



두 가지 방식

2025-10-5 13:02 이효원 에 의해 작성

살아가며 우리는 두 가지 큰 결정을 마주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두 질문은 모두 인생을 이루는 근간이 되지만,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직업은 보통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무엇을 좋아하지?" 그 안에서 가치, 강점, 흥미가 만나는 교차점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시작합니다. 이 선택의 과정은 마음을 열고 탐색하며, 그중 현실에 맞고 지속 가능한 길을 조금씩 좁혀가는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직업은 열어두고 걸러내는 방식의 결정입니다.

반면, 사랑과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수업에서 '내릴 수 없는 것발'로 표현되었듯, 이 여정은 오히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지, 무엇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먼저 알아가는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이런 가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방식은 나를 다치게 해."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은 안 돼'라는 결정을 통해 가능성을 하나씩 제외해 나갑니다. 그렇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가 정리된 뒤에야, 비로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은 어딘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직업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관계를 꿈꿔" 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그 반대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가능성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그렇게 나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야 비로소 누군가를 '남겨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기대보다 경계가 먼저 떠오른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결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직업은 나를 세상으로 확장하는 선택이고, 사랑은 나의 내면을 찾아가는 선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업은 나의 능력과 열정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방식이고, 사랑은 나의 감정과 진심을 지키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일이고,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여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서로 다른 방식의 존중입니다. 일은 나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사랑은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Permalink](#) | [수정](#) | [삭제](#) | [답변 등록](#)



회신: 두 가지 방식

2025-10-5 15:03 김민준 에 의해 작성

자료: GIST '행복의 조건' 수업 장면 및 행복 포럼(수업 자유게시판) 학생 글